

# 경계 넘어선 국악의 매력 속으로~



지난해 국립남도국악원 연수에 참여한 독일 참가자들의 발표회 모습.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 '섬'.

무형문화유산의 보물 창고 진도에 문을 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국악의 향기가 어우러진 곳이다. 국악전용 극장 진악당과 국악연수관, 1200석 규모의 원형 야외 공연장, 숙박시설인 사랑채 등을 운영하며 국악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주춤했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이 공연, 교육, 학술 사업 등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악원은 개원 이후 다양한 창작품을 제작했다. 올해는 신규 작품을 제작하는 대신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을 탄탄히 보완해 레퍼토리화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진도와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던 '섬'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진도 방아타령, 조도 닻배 노래, 신안 미역 따는 소리 등 남도 지역에서 불려졌던 토속 민요만으로 음악을 만든 작품으로 한 가족이 현대사를 관통하며 겪는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부산과 남원 공연에 이어 오는 2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또 어린이국악극 '우리랑 진도개배'를 올해 어린이날 무대에 올릴 예정이며 인기 레퍼토리인 '진도 씻김굿'은 재정비 후 해외 초청공연 등에 출품을 추진한다.

올해 국악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다문화가족 교류체형이다. 올해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도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 국립남도국악원 을 사업계획 발표 '섬' '진도 씻김굿' 등 레퍼토리화 IT 활용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해외동포연수, 다문화가족 교류체형

다. 가족을 진도로 초청해 6박7일 일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엄마의 고향을 직접 방문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도 동시에 추진한다.

최첨단 영상기법과 멀티미디어, IT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완성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선보인다. 모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국악원 진악당 공연장을 활용한 입체영상물 '진도의 풍류여행'을 만날 수 있으며 진악당 로비에 IT기술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와 음악감상, 체험실 등을 갖춰 국악원을 찾는 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했다.

국제 교류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해외동포와 외국인인을 초청해 2주간 전통예술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동포국악연수 사업에 눈을 끈다. 해외동포가 주를 이뤘던 예전 연수와 달리 지난해부터는 헝가리, 독일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러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18개 국에서 모두 582명이 접수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 중 14개국 334명을 선정,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무용, 기악, 사물놀이, 국악 이론 등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발표회를 가지며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민간 사절 역할을 한다. 또 코로나로 중단된 해외공연은 오는 4월 브라질과 페루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 헝가리 초청공연으로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는 시간대를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3시로 옮겨 진행한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선보이는 공연과 함께 명인명창 초청공연, 공모를 통한 우수 단체 지원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3월에는 창곡 '남원에 새봄이 들어' (18일), '약당광칠 콘서트' (25일)가 예정돼 있다.

국악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굿음악 축제'는 국악 전공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학술총서 '북녘의 국과 음악' 남도무형문화예술 시리즈 음반 발매도 진행한다. '굿음악 축제' 등 학술연구 사업도 이어간다.

그밖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지역 문화해설사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악원을 알리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트로트 새 길 가겠습니다”

MBN 트롯 경연 '불타는 트롯맨 톱7'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불타는 트롯맨' 톱7 신성, 손태진, 예녹.

“트로트가 싫다는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가슴 속에 추억하는 트로트 곡 하나씩은 있을 거야’라고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트로트 가수로서 도전을 이어오고 있어요.”(공훈)

“트로트에는 슬픔, 사랑, 즐거움 등 히로에악이 다 담겨있어요. 전 연령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트로트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신성)

MBN 음악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결승에 진출한 톱(TOP) 7인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로트의 매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위 손태진을 비롯해 신성(2위), 민수현(3위), 김중연(4위), 박민수(5위), 공훈(6위), 예녹(7위) 등이 참석했다.

“'대 트롯맨'이 된 손태진은 JTBC 팬텀싱어(2016)에서도 최종 우승을 차지했던 성악가 출신이다.

베이스로서 갖고 닦아온 특유의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에 트로트의 기교를 더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여러 장르의 스타일이 합해진 음악)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체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저를 가두는 틀을 깨부수고자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한 거였다”고 돌아봤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가수로서 어떻게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안주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태진은 가수 심수봉의 외조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음악 장르와 비교했을 때 트로트가 갖는 매력은 바로 ‘넓은 공감대’라고 꼽았다.

“가사에 정말 솔직한 이야기가 녹아 있다는 게 매력적이예요. 때론 웃고 싶고, 때론 눈물 흘리면서 위로받고 싶은데, 상황에 맞는 곡이 너무 많아요. 가수로서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동료 가수들도 트로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중연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관객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고, 민수현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매력적”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11년 동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해왔다는 신성은 “우리(톱 7인)의 각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뉴 트로트 시대’를 열고 싶다”며 “트로트가 오래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 캘리그래피 '예술 감성'

망풍나무문화예술협, 갤러리함서 20일까지 회원전

“다양한 캘리그래피를 만나.”

캘리그래피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망풍나무문화예술협회는 첫번째 회원전 '망풍나무캘리그래피 씨앗전'이 오는 20일까지 갤러리함(광주시 동구 의재로 136번길 19)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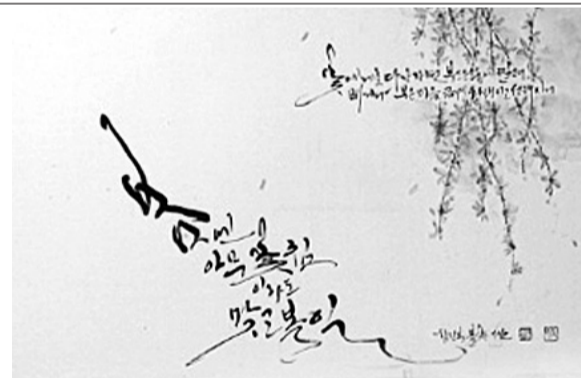
〈사진〉

“이미 그대로 괜찮으니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8명의 회원이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성이 담긴 글씨와 다양한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은 회원들의

개성을 고스란히 나타내준다.

전시 기간중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오는 17일과 18일에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무료 글씨나눔 체험 행사가 열리며 18일 오후 2시에는 양중희 대표의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망풍나무캘리그래피는 2017년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중장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로 캘리그래피 작가이자 디자이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



중희 작가가 대표를 맡고 있다.

40여명의 회원들은 매년 캘리그래피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또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통 라온시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문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